

[62~6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비 개인 긴 강둑엔 풀빛이 짙었는데 (雨歇長堤草色多)  
 남포에서 그대 보내니 슬픈 노래 울리네. (送君南浦動悲歌)  
 대동강 물은 그 언제나 다할런가 (大洞江水何時盡)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하거니. (別淚年年添綠波)  
 — 정지상의 「송인(送人)」

(나)

靑山(청산)은 내 뜻이오 綠水(녹수)는 님의 情(정)이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변)할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저 우러 예어 가노고.  
 — 황진이의 시조

(다)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백설(白雪)이 혼 비친 제, 사람은  
 크니와 놀새도 굶쳐 있다. 소상 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  
 커든, 옥누(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날너 뜨습 허리. 양춘(陽春)  
 을 부쳐 내어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모침(茅簷)\* 비친 허를 옥누  
 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피치고 취슈(翠袖)\*를 반만 거더,  
 일모(日暮) 슈둑(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다른 허 수이 디  
 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것티 던공후(鈿箜篌)\* 노  
 하 두고, 꿈이나 님을 보려 턱 밧고 비겨시니, 양금(鴛鴦)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쉰고.

하라도 열두 해 혼 둘도 설흔 날, 저근덧 심각 마라 이 시름 님  
 자 허니, 마음의 미쳐 이셔 골수(骨髓)의 쉰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었디 허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미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드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  
 르셔도 내 님 조촉려 허노라.

—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에서

\*소상 남반(瀟湘南畔) : 소상강 남쪽  
 \*옥누(玉樓) : 옥황상제가 있는 곳  
 \*모침(茅簷) : 초가집 처마  
 \*취슈(翠袖) : 푸른 소매  
 \*슈둑(脩竹) : 긴 대나무  
 \*던공후(鈿箜篌) : 자개 장식을 한 공후

62.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의 태도를 원망하고 있다.
- ② 임을 보내면서 부른 노래이다.
- ③ 이별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④ 이별의 상황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사랑의 속절없음에 대한 한탄이 주된 정서이다.

63. (가)의 결구(結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점]

- ① 기구(起句)의 ‘풀빛’과 시간적으로 어울린다.
- ② 과장된 표현으로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전구(轉句)의 ‘언제나 다할런가’와 의미가 호응한다.
- ④ 이별의 정한(情恨)이 깊은 강물의 흐름과 어우러진다.
- ⑤ 해마다 더해 가는 현실에 대한 무상감이 푸른 물결과 대응한다.

64. (나)의 시적 형상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굳은 뜻과 변하는 정(情)을 대조시켰다.
- ② 울음을 물이 소리 내어 흐르는 것에 비유했다.
- ③ 청산(靑山)은 불변한다는 관습화된 상징을 이용했다.
- ④ 정(情)이 변하는 것을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구상화했다.
- ⑤ 이별을 청산(靑山)의 탈속적(脫俗的)인 이미지로 나타냈다.

65. <보기>의 시조는 상상력을 통해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  
 다. 이와 유사한 변용이 이루어진 대상을 (다)에서 찾으시오. [2 점]

<보 기>  
 冬至(동지)스들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버혀 내어  
 春風(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① 옥누(玉樓)
- ② 양춘(陽春)
- ③ 홍상(紅裳)
- ④ 양금(鴛鴦)
- ⑤ 골수(骨髓)

◆ 06-9평 15~21번

[15~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풍이 건뚝 불어 적설(積雪)을 헤쳐 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 ㉠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뚝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의 달이 좇아 ㉡ 베개 밑에 비치니  
 느끼는 듯 만기는 듯 입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 가뚝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五色線) 풀어 내어  
 ㉣ 금자로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珊瑚樹) 지게 위에 백옥함(白玉函)에 담아 두고  
 ㉤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뒤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 정철, 「사미인곡」 -

(나) 집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 물방울의 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또한 윤이 나  
 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앉은 트랙의, 물 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레. 서방님은 바람 갈단들 어느 때고  
 ㉡ 바람은 어려 올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  
 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레.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  
 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  
 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萬里)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  
 ) 빛 입자가 아니었을까나.

- 박재삼, 「수정가」 -

(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 ┌ 너였다가
- [A]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 ┌ 다시 문이 닫힌다
- ┌ 사랑하는 이여
- ┌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 ┌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 ┌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 ┌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 [B]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 ┌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 ┌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 ┌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 ┌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이별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회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실을 초월하려는 종교적 신념이 드러나 있다.
- ④ 서글프면서도 강렬한 설득적 어조가 드러나 있다.
- ⑤ 사랑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16. <보기>는 (가)의 작가가 쓴 한시(漢詩)이다.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궁궐 담 남쪽 언덕에 나무는 푸르고 푸르리니  
 돌아가는 꿈이 멀리멀리 옥당(玉堂)에 오른다  
 두견새 슬피 울자 산에 대나무가 떨어지니  
 고신(孤臣)의 머리털이 이때에 더욱 세어진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7. (가)의 시상 전개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때,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기대감의 이유	현실의 확인	현실 극복을 위한 행위
봄	동풍	(ㄱ)	저 매화를 꺾어 입 계신 데 보내고자 함
여름	새 잎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음	(ㄴ)

- |             |            |
|-------------|------------|
| (ㄱ)         | (ㄴ)        |
| ① 녹음이 깔림    | 제도를 잘 갖추   |
| ② 암향이 일어남   | 백옥함에 담아 둠  |
| ③ 산과 구름이 험함 | 오색실을 풀어 냄  |
| ④ 적설을 헤쳐 냄  | 부용을 건어 놓음  |
| ⑤ 가뭄 냉담함    | 입의 웃을 지어 냄 |

18. (나)에서 ㉠과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파악으로 올바른 것은? [1점]

- |          |           |
|----------|-----------|
| ㉠        | ㉡         |
| ① 생산과 풍요 | 죽음과 상실    |
| ② 순수한 사랑 | 죽음과 상실    |
| ③ 인생무상   | 재회에 대한 믿음 |
| ④ 생산과 풍요 | 윤회에 대한 확신 |
| ⑤ 순수한 사랑 | 재회에 대한 믿음 |

19. <보기>를 (나)로 바꿔 썼다고 할 때, 나타난 변화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갈까 부다, 갈까 부다, 입 따라서 갈까 부다. 천 리라도 따라가고 만 리라도 갈까 부다. 바람도 쉬어 넘고, 구름도 쉬어 넘는, 수지니, 날지니, 해동청, 보라매 다 쉬어 넘는 동설령 고개라도 입 따라 갈까 부다.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 동풍 제비 되어, 입 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노니다가, 밤중이면 입을 만나 만단 정회를 허고 지고, 뉘 년의 꼬임 들고 영영 이별이 되려는가? 어쩔거나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 ① 감정 표현이 절제되었다.
- ② 해학적 특성이 두드러졌다.
- ③ 음악적 특성이 강화되었다.
- ④ 우화적 성격이 약화되었다.
- ⑤ 관용구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20. (나)와 (다)에 나타난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체를 활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② 반어적인 표현으로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설화적 인물과 사건을 빌려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통해 어조 변화를 꾀하고 있다.

21. (다)에서, [B]에 비추어 [A]를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면세계로 몰입하는 계기가 되는군.
- ② 낮은 세계를 동경하는 계기가 되는군.
- ③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군.
- ④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계기가 되는군.
- ⑤ 이상과 현실이 타협하는 계기가 되는군.

◆ 13-6평 13~18번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평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러가는 ㉡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처서 옛 탑 위의 고평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쁨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달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A]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뜰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배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입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입 계신 데 보내고져. 입이 너를 보고 어땀다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뜰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입의 웃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입에게 보내려고 입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뒤라서 찾아갈꼬. 가져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엘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뵈니 입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 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입 계신 데 쏘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 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걸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입을 보러 턱 반치고 기대니 앙금(鶯衾)\*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쉰꼬.

- 정철, 「사미인곡」 -

\* 앙금: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14.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① ㉠: ‘바람도 없는 ~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 ②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변뇌와도 같은 것이군.
- ③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 ⑤ ㉤: ‘타고 남은 ~ 뭍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16.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17. (나)의 ‘부뚱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뚱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 ② ‘부뚱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 ③ ‘부뚱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 ④ ‘부뚱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⑤ ‘부뚱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본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의 그리워 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양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꺾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믿음 이 사랑 견줄 더 노여 업다  
 평생(平生)에 원(願)호요디 혼디 네자 호얏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엇그제 님을 피쳐 광한던(廣寒殿)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느려오니  
 올 저기 비슨 머리 헛들언 디 삼 년일쇠  
 연지분(胭脂粉) 이니마는 늘 위호야 고이 홀고  
 믿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져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성(人生)은 유한(有限)호디**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호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호는고야**  
**염냉(炎涼)이** 때를 아라 가는 듯 고토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사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밧긔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궂득 냉담(冷淡)호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의 들이 조차 버마터 빗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 -

(나)

창 밧긔 위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어즈버 유한(有限)호 간장(肝腸)이 **다** 그츨가 **호노라**

- 신희 -

\* 혜란 혜경: 난초 편 지름길.

(다)

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갯집에 살았다. 그 집은 저갯거리에 제법 가까워서 소란스러웠다.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 벗질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 만했다. 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靜勝熱]'는 말을 당호(堂號)\*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

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취 보고 거북이로 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인 있겠는가?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

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고 이사하였다. 그로부터 삼 년이 흐른 뒤 옛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 팔팔팔 담을 따라 도는 골짜기 물,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 쪽빛으로 물들여 놓은 늘어진 천막.

(중략)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

『서경』에 '그릇은 새것을 찾고, 사람은 옛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게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林園)\*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답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 당호: 집에 붙이는 이름.

\* 유중영의 옛일: 당나라 때 문신 유중영이 늘 책을 가까이하며 자식들을 가르치던 일.

\* 임원: 산림.

3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노여'와 (나)의 '다'라는 수식어는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② (가)의 '호는고야'와 (나)의 '호노라'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 ③ (가)의 '미화'와 (나)의 '혜란'은 모두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 ④ (가)의 '므스 일고'와 (나)의 '므스 일고'는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다.
- ⑤ (가)의 '님이신가'와 (나)의 '님이신가'는 모두 입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 ① 입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입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② '점어 있고'와 '늑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 ③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입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 ④ '인성은 유혼'과 '무심흔 세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어.
- ⑤ '염냥이'가 '가는 듯 고터' 온다는 인식에서, 입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40.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 ①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② (나)에서 '낙엽' 소리를 입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의 심리가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 ③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옛집'의 '초당'에 붙였던 당호를 '임원'의 새집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것은 필자가 외적 고요에 더해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굳더터기'로 본다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41. (가)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다) 모두 인간의 외양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 모두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④ (가)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다)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에는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다)에는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42.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름에 더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옛집 초당의 당호를 정하게 된 내력을 서술하고 있다.
- ②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 다시 찾은 옛집에서 떠올린 기억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새집에 붙이고자 하는 당호의 의미를 통해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변함없는 옛집의 외양과 달리, 변해 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집이 그릇과 같은 부류이지만 사람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여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04-6평 43~47번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 리라 내 고향은 첩첩 **봉우리** 저쪽  
 돌아가고 싶은 마음 언제나 **꿈** 속이네.  
 한송정 곁에는 외로운 **달빛**이요  
 경포대 앞에는 한 떼의 **바람**이리.  
 모래밭의 백구는 모였다 흩어지고  
 물결 위의 어선들은 왔다갔다 하였네.  
 언제나 다시 임영(臨瀛)\*의 길을 밟아  
 때때웃에 춤추며 슬하에서 옷 지을꼬.  
 千里家山萬疊峰 歸心長在夢魂間  
 寒松亭畔雙輪月 鏡浦埕前一陣風  
 沙上白鷗恒聚散 波頭漁艇海西東  
 何時重踏臨瀛路 綵舞斑衣膝下縫

- 사임당 신씨, 사친(思親) -

\* 임영 : 강릉의 옛 이름.

(나)

반중(盤中) 조홍(早紅)감\* 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가 아니라도 품을 적도 허디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그로 설워하나이다.

- 박인로, 조홍시가(早紅柿歌) -

\* 조홍감 : 일찍 익은 붉은 감.

\*\* 유자가 ~ 허디마는 : 후한(後漢)의 육적이 님의 집에 갔다가  
 대접 받은 꿀[유자]을 먹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 품고 왔다는  
 고사에서 끌어온 표현.

(다)

님다히\*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들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뒀**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가.  
 산천이 어두운데 일월(日月)을 어찌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라.  
 차라리 물가에 가 **뱃길**이나 보려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히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  
 강천(江天)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모참(茅簷)\*\* 찬 자리에 밤중쯤 돌아오니  
 반벽(半壁) 청등(靑燈)은 누굴 위해 밝았는가.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장이니,  
 잠시 동안 역진(力盡)하여 풋잡을 잠긴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옥(玉) 같은 몸이 반이나마 늙으셨네.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려려니,  
 눈물이 쏟아지니 말씀인들 어찌하며,  
 정(情)을 못 다 하여 목조차 메이는데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이아 허사(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잠결에 일어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가연은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져서 **낙월(落月)**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추리라.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 님다히 : 임 계신 곳.

\*\* 모참 : 초가집.

43. (가)~(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신과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② 이별의 상황에서 재회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④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운명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있다.

44. (가)와 (다)의 밑줄 친 시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봉우리’와 (다)의 ‘높은 뒀’는 탈속적 공간이다.
- ② (가)의 ‘꿈’과 (다)의 ‘꿈’은 소망의 간절함을 담고 있다.
- ③ (가)의 ‘달빛’과 (다)의 ‘낙월’은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사물  
 이다.
- ④ (가)의 ‘바람’과 (다)의 ‘바람’은 화자의 내면과 관련이 있다.
- ⑤ (가)의 ‘길’과 (다)의 ‘뱃길’은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통로  
 이다.

45. (가)의 시적 화자를 주인공으로 한 편의 소설을 쓰려고  
 한다. 이 소설에 필요한 장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고향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짓는 모습
- ② 마을 어귀에서 어머니와 이별하는 모습
- ③ 강릉 바닷가에서 백구를 바라보는 모습
- ④ 정답게 걷고 있는 모녀를 보며 부러워하는 모습
- ⑤ 밤새도록 언 손을 붙여가며 마느질을 하는 모습

46. (나)에 대하여 학생이 스스로 탐구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는 중이다. <보기>에서 과제 해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중심 소재인 ‘조홍감’의 기능은?  
 → 외적 기능 : 장장의 계기, 내적 기능 : 정서 환기 ..... ①
- ‘유자(柚子)’ 관련 **고사(故事)**를 인용한 효과는?  
 →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킴 ..... ②
- 표현 기법상의 특징은?  
 → 표면과 어면의 의미가 다른 **반어(反語)** ..... ③
- 주제와 관련된 한자 성어가 있을까?  
 → 풍수지탄(風樹之嘆) ..... ④
- 독자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게 될까?  
 → 부모님 생전에 효도를 다하지는 마음을 갖게 함 ..... ⑤

47. <보기>를 (다)의 화자가 쓴 일기의 일부라고 할 때, 작품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은?

—<보 기>—

① 오늘도 나는 그의 소식을 기다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기진하여 밤길을 더듬어 돌아왔을 때, ② 나를 기다린 건 쓸쓸한 등불뿐이었다. 홀로 빈방에 앉아 있다가 ③ 나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다. 꿈에 본 그이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④ 실컷 하소연하다가 꿈에서 깨어 보니 그저 허망할 뿐이었다. ⑤그이의 곁에 가고 싶다. 아, 그 날이 언제 올까?

◆ 06 수능 24~30번

[24~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환하니      霜天月照夜河明  
 나그네는 돌아가고픈 심정이 간절해지네      客子思歸別有情  
 긴긴 밤 근심에 겨워 오래 앉았노라니      厭坐長宵愁欲死  
 홀연 들리는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      忽聞隣女擣衣聲  
 바람에 실려 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聲來斷續因風至  
 밤 깊고 별이 낮도록 잠시도 멈추지 않네      夜久星低無暫止  
 고국을 떠난 뒤로는 듣지를 못하였건만      自從別國不相聞  
 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소리 서로 비슷하네      今在他鄉聽相似

- 양태사,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

(나)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겨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려고  
 어와 너여이고 나의 사설 들어 보오  
 ㉠ 내 얼굴 이 거동이 입 괴얍죽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네로다 여기실새  
 ㉡ 나도 입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지  
 ㉢ 받기지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헤아리니  
 ㉣ 내 몸의 지은 죄 죄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 설위 풀쳐 헤니 조물의 탓이로다  
 글란 생각 마오 뻗힌 일이 있어이다  
 입을 피서 있어 임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고  
 춘한(春寒) 고열(苦熱)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뒤라서 피셨는고

[A]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다)

그날 황혼 천하에 공지(空地) 없음을 한탄하며 뉘 집 이층에서 저물어 가는 도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실로 덕수궁 언뜻 같은, 날만 따뜻해지면 제 출몰에 해소될 영성한 공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참 ㉠ 훌륭한 공지를 하나 발견하였다.

○○보험회사 신축 용지라고 대서특서한 높다란 판장(板牆)으로 둘러막은 목산(目算) 범 천 평 이상의 ㉡ 명실상부의 공지가 아닌가.

잡초가 우거졌다가 우거진 채 말라서 일면이 세피아 빛으로  
덜인 실로 ㉠황량한 공지인 것이다. 입추의 여지가 가히 없는  
이 내도시 한복판에 이런 인외경(人外境)의 감을 ㉡풍기는 ㉢적지  
않은 공지가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닐 수 없다.

인마(人馬)의 발자취가 끊인 지—아니 그건 또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지만—오랜 이 공지에는 강아지가 서너 마리  
모여 석양의 그림자를 끌고 회롱한다. 정말 공지—참말이지  
이 세상에는 인제는 공지라고는 없다. 아스팔트를 깐 편질한  
길도 공지가 아니다. 질퍽한 논밭, 임야, 석산, 다 아무개의  
소유답이요, 아무개 소유의 산꿏\*\*이요, 아무개 소유의 광산인  
것이다. 생각하면 들에 나는 풀 한 포기나 공지에 뿌리를 내  
리지 못한다. 이치대로 하자면 우리는 소유자의 허락이 없이  
일 보의 반 보를 어찌 옮겨 놓으리오. 오늘 우리가 제법 교외로  
산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세상 인심이 좋아서 모두들  
묵허(默許)를 해 주니까 향유할 수 있는 사치다. 하나도 공지가  
없는 이 세상에 어디로 갈까 하던 차에 이런 ㉣공지다운 공지  
를 발견하고 저기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누워서 담배나 한  
대 피웠으면 하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보  
협회사가 이윤을 기다리고 있는 건조물인 것을 깨달았다. 다  
만 이 건조물은 콘크리트로 여러 층을 쌓아 올린 것과 달라 잡  
초가 우거진 형태를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봄이 왔다. 가난한 방안에 왜꼬아리 분(盆) 하나가  
철을 찾아서 요리조리 짝이 튼다. 그 닳끔 한 퇴도  
[B] 안 되는 흙 위예다가 늘 잉크병을 올려놓고 하다가  
썩트는 것을 보고 잉크병을 치우고 거우내 그대로  
두었던 낙엽을 거두고 맑은 물을 한 주발 주었다.  
그리고 천하에 공지라곤 요 분 안에 놓인 땅 한 군데밖에  
없다고 좋아하였다. 그러나 두 다리를 뻗고 누워서 담배를 피  
우기에는 이 ㉤동글납작한 공지는 너무 좋다.

- 이상, 「조춘점묘(早春點描)」 -

\* 목산: 눈으로 어림셈함.  
\*\* 산꿏: 산갓. 산림의 의미.

2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과 환상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④ 바라는 공간에 있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연물에 빗대어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25. (가)의 시어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달'과 '은하수'는 시흥을 불리일으키는 배경이다.
- ② '다듬이 소리'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 ③ '바람'은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④ '별이 낮도록'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보여 준다.
- ⑤ '서로 비슷하네'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중첩됨을 드러낸다.

26. (나)를 상소문이라고 가정할 때, (나)의 ㉠~㉤ 중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1점]

<보 기>

상소문은 여러 경우에 쓰는데, 그 중에는 개인의 억울함  
을 하소연하는 것도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전말을 밝혀 자  
신의 잘못이 아님을 해명하거나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타타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금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B]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 있다.
- ② [A], [B] 모두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A], [B] 모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가 드러나 있다.
- ④ [A]에는 공간적인 이동이, [B]에는 시간적인 경과가 나타나 있다.
- ⑤ [A]는 반영적인 표현을, [B]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28. <보기>를 통해 (다)의 화자의 심리를 미루어 짐작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현대인이 신경증을 앓는 까닭은 자신이 만들어 낸 바로  
그 문명 때문일 것이다.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욕망의  
창고에는 오히려 빈 구석만 더욱 늘어 간다. 그리고 그 빈  
구석을 메우고 타오르는 것은 율화의 불길이다.

- ① 도시적 삶이 주는 화려함에 이끌려 해매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② 전통적 가치가 배척되는 근대 사회를 보고 비애감을 느끼고  
있다.
- ③ 식민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상실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다.
- ④ 도시 문명에서 도피하여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을 느  
끼고 있다.
- ⑤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도시 문명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쌓여 있다.

29. (다)의 a~e 중, 같은 장소를 가리키지 않는 것은? [1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0. (다)의 '풍기는'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키로 까불러서 김불을 풍기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 ② 이국의 정취가 풍기는 아름다운 거리를 한없이 걸어갔다.
- ③ 진한 향기를 풍기는 붉은 해당화가 마음을 설레게 했다.
- ④ 총소리가 풀숲에 숨어 있던 새들을 풍겼다.
- ⑤ 시골 길로 버스가 지나가자 먼지가 풍겼다.

◆ 07 수능 51~56번

[51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 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 리(千里) 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량의 시조 -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魂魄) 조차 흠어지고  
**공산** **촉루**(空山 觸露) \*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 \*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 만겁(輪廻萬劫) 하여 **금강산 학**(鶴) 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 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 \*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疎影) \*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 **가엾은**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 조위, 「만분가(萬憤歌)」 -

- \* 공산 촉루: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 \* 만장송: 만 길이나 되는 소나무.
- \* 침변: 베갯머리.
- \*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다)

우리 집 이웃의 늙은 부부는 늦게야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자기네가 목불식정(目不識丁\*인 것이 철천의 한이 되어서 아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시켜 보겠다고, 어려운 살림에도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노상 “우리 서당 애, 우리 서당 애.” 하며 아들 이야기를 했었다. 그의 집 단칸방에 있는 다 깨어진 질화로 위에, 점심 먹으러 돌아오는 예(例)의 서당 아이를 기다리는 따뜻한 토장찌개가 놓였음은 물론이다. 그 아들이 『천자문』을 읽는데, ‘질그릇 도(陶) 당국 당 唐 이라 배운 것을 어찌 된 셈인지 ‘꼬끼요 도, 당국 당’이라는 기상천외의 오독을 하였다. 이것을 들은 늙은 ‘오마니’가, 알지는 못하나마 하도 괴이하여 의의(疑義) 를 삽 插 한즉\*, 늙은 영감이 분연(憤然) 히, “여보 할멈,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 마소. 글에 별소리가 다 있는데, ㉢ ‘꼬끼요 도’는 없을라고.” 하였다. 이렇게 단연(斷然) 히 서당 아이를 변호한 것도 바로 질화로 위의 찌개 그릇을 둘러앉아서였다. 얼마나 인정미 넘치는 태고연(太古然) 한 풍경이냐.

사랑에 놓인 또 하나의 질화로는 이와는 좀 다른 풍경을 보였다. 머슴, 소배(少輩)들이 모인 곳이면, 신 삼기, 등우리 만들기에 질화로를 에워싸 한창 분주하지마는, 팔씨름이라도 벌어지는 때에는 쌍방이 엮디어 서로 버티는 서슬에 화로를 발로 차 온 방 안에 재를 쏟아 놓기가 일쑤요, 노인들이 모인 곳이면, 고담 책\* 보기, 시절 이야기, 동네 젊은 애들 버릇없어져 간다는 이야기들이 이 질화로를 둘러서 일어나는 일이거나, 노인들의, 입김이 적어서 꺼지기 쉬운 장죽은 연해 화로의 불뿔 밑을 번갈아 찾아가었다. ㉞ 그리하여 기나긴 겨울밤은 어느덧 밝을 녘이 되는 것이다.

돌이켜 우리 집은 어떠했던가? 나도 5, 6세 때에는 서당 아이였고, 따라서 질화로 위에는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찌개 그릇이 있었고, 사랑에서는 밤마다 아버지의 담뱃대 터시는 소리와 고서(古書)를 읽으시는 소리가 화로를 둘러 끊임없이 들렸었다. 그러나 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㉞ 그 소리는 사랑에서 그쳤고, 따라서 바깥 화로는 필요가 없어졌고, 하나 남은 안방의 화로 곁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대학(大學)』을 구수(口授)\* 하시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마저 내가 열두 살 되던 해에 그 질화로 옆을 길이 떠나가시었다. 그리하여 서당 아이는 완전한 고아가 되어, 신식 글을 배우러 옛 마을을 떠나 동서로 표박(漂泊)\*하게 되었고, 화로는 또다시 찾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다.

질화로의 찌개 그릇과 또 하나의 질화로에 깊이 묻혀던 장죽, 노변(爐邊)의 ㉞ 추억은 20년 전이 바로 어제와 같다.

- 양주동, 「질화로」 -

- \* 목불식정: 글자를 한 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 \* 의의를 삼한죽: 의문을 제기하니.
- \* 고담 책: 옛날이야기 책.
- \* 구수: 학문이나 지식 따위를 말로 전하거나 가르쳐 줌.
- \* 표박: 일정한 주거나 생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지냄.

51. (가)~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나타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③ 작품의 바탕에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 ④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일상적 소재를 위주로 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52.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53. (가)의 '꿈'과 (다)의 '추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꿈'과 '추억'에는 모두 교훈적 의미가 담겨 있다.
- ② '꿈'의 내용이 현실적이라면, '추억'의 내용은 환상적이다.
- ③ '꿈'과 '추억' 모두 화자의 현실적 고난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 ④ '꿈'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다면, '추억'은 다양한 대상과 연관된다.
- ⑤ '꿈'과 '추억'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54.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옥황상제'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존재이다.
- ② '공산 축루', '외나무'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보여 준다.
- ③ '만장송', '금강산 학'은 임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
- ④ '바람비 뿌린 소리', '두어 소리'는 임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 ⑤ '침번에 시드는'은 임이 처한 현재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55. ㉠~㉞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한'과 '눈물'의 관계를 '뿌리'와 '가지'에 비유하여 형상화했군.
- ② ㉡: 화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군.
- ③ ㉢: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 ④ ㉣: 겨울밤이 무척이나 길고 무료했다는 뜻이군.
- ⑤ ㉤: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56. (다)의 '질화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글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③ 가난을 환기하는 소재로 설정되어 있다.
- ④ 정감이 넘치는 풍경을 연상시키고 있다.
- 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

◆ 15-9평 B형 43~45번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디매오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에 자청전(紫淸殿)이 가렸으니  
천문(天門) ㉠ 구만 리(九萬里)를 꿈이라도 같동 말동  
차라리 식어지어 억만(億萬) 번 변화(變化)하여 ]…………… [A]  
남산(南山) 늦은 봄에 두견(杜鵑)의 낮이 되어  
이화(梨花)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울거든  
삼청동리(三淸洞裡)\*에 저문 하늘 ㉡ 구름 되어  
㉢ 바람에 흘러 날아 자미궁(紫微宮)에 날아올라  
옥황(玉皇) 향안 전(香案前)의 지척(咫尺)에 나아 앉아  
흉중(胸中)에 쌓인 말씀 쓸커시 사뢰리라 ]…………… [B]  
어와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늦게 나니  
황하수(黃河水) 맑다마는  
㉣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끝이 없고  
가 태부(賈太傅)\*의 낮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고  
형강(荊江)은 고향(故鄉)이라 십 년(十年)을 유락(流落)하니  
㉤ 백구(白鷗)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루는 듯 괴는 듯 남의 없는 입을 만나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오색(五色)실 이음 짙아 입의 옷을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입의 은(恩)을 추호(秋毫)나 갚으리라  
백옥(白玉) 같은 이 내 마음 입 위하여 지키더니 ]…………… [C]  
장안(長安) 어젯밤에 무서리 섞여 치니  
일모 수죽(日暮脩竹)\*에 취수(翠袖)도 냉박(冷薄)할사\* ]… [D]  
유란(幽蘭)을 꺾어 쥐고 입 계신 데 바라보니 ]…………… [E]  
약수(弱水)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 조위, 『만분가(萬憤歌)』 -

\* 삼청동리: 신선이 사는 동네 안.  
\* 초객: 초나라의 시인 굴원.  
\* 가 태부: 한나라의 태부 가의.  
\* 일모 수죽: 해 질 녘 긴 대나무.  
\* 취수도 냉박할사: 푸른 옷소매도 차디차구나.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반복하여 상대방을 회화하고 있다.
  -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④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여 교훈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경물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44.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
  - ② ㉡: 화자와 대상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 ③ ㉢: 화자와 대상의 만남을 도와주는 매개
  - ④ ㉣: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
  - ⑤ ㉤: 화자가 교감을 나누는 존재

45.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만분가』는 유배를 간 작가가 천상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연군(戀君)의 마음을 표현한 유배 가사의 효시이며 이후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가사 문학의 대표작인 『속미인곡』 역시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작가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만분가』의 형식을 계승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보기 2>—

모침(茅簷)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 [가]  
반벽청등(半壁淸燈)은 늘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장이니  
저근덧 역진(力盡)하여 풋잠이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입을 보니  
옥(玉) 같은 얼굴이 반(半)이 넘게 늙으셨네 ]…………… [나]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삶자 하니 ]…………… [다]  
눈물이 바라 나니 말씀인들 어이 하며  
정(情)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었으니  
방정맞은 계성(鷄聲)에 잠은 어찌 깨었는고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입이 어디 간고  
결에 일어나 앉아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 [라]  
어여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식어지어 낙월(落月)이나 되어 있어 ]…………… [마]  
입 계신 창(窓)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 ① [A]와 [마]에는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 ② [B]와 [다]에는 마음에 담아 둔 말을 실컷 전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 ③ [C]와 [나]에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 ④ [D]와 [가]에는 임금과 떨어져 있는 고독한 시·공간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함이 담겨 있다.
- ⑤ [E]와 [라]에는 먼 곳에 있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 담겨 있다.

◆ 19-6평 32~34번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마르른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희마르른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여히므른 아즐가 여히므른 **질삼피** 브리시고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궤시란디 아즐가 궤시란디 **우리꿈 좃노이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제1연>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긴히썸 아즐가 긴히썸 그즈리잇가 나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즘른 히를 아즐가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즈리잇가** 나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A]

<제2연>

- 작자 미상, 『서경별곡』 -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식여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식여지어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空山) 측루(鬻樓)\*같이 임자 업시 구닐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의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이서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輪廻) 만겁(萬劫)하여 금강산(金剛山) 학(鶴)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깃들듯 솟아올라  
 ㄱ을 들 볼근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우리**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혼(恨)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밭기 외나모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月中) 소영(疎影)\*이 님의 옷에 **빗취어든**  
 어엿븐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가**  
 동풍이 유정(有情)하여 암향(暗香)을 불어 올려  
 고결(高潔)한 이내 생애 죽림(竹林)에나 부치고저  
**빈 낙대** 빗기 들고 빈 비를 혼자 띄워  
 백구(白溝) 건너 저어 건덕궁(乾德宮)에 가고지고

- 조위, 『만분가』 -

\* 공산 측루: 텅 빈 산의 해골.

\* 침변: 베갯머리.

\*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서울'과 (나)의 '건덕궁'은 모두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가)의 '질삼피'와 (나)의 '빈 낙대'는 모두 화자가 현재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 ③ (가)의 '우리꿈'과 (나)의 '슬피 우리'는 모두 임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좃노이다'와 (나)의 '빗취어든'은 모두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그즈리잇가'와 (나)의 '반기실가'는 모두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3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자 업시 구닐'던 '이 몸'이 '학'이 되어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상승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 ② '만장송'과 '매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입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표상하고 있다.
- ③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임에게 알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매화'의 '뿌리'와 '가지'를 활용하여 '혼'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ㄱ을 들 볼근 밤'과 '월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입과 재회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경별곡』의 제2연에서 여음구를 제외한 부분은 당시 유행 하던 민요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으로, 『정석가』에도 동일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고려 시대의 문인 이제현도 당시에 유행 하던 민요를 다음과 같이 한시로 옮긴 적이 있다.

비록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縱然巖石落珠璣	] [B]
끈은 진실로 끊어질 때 없으리.	纓縷固應無斷時	
낭군과 천 년을 이별한다고 해도	與郎千載相離別	
한 점 붉은 마음이야 어찌 바뀌리오?	一點丹心何改移	

- ① [A]와 [B]에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군.
- ② [A]에서는 ‘신’을, [B]에서는 ‘붉은 마음’을 굳건한 ‘비유’로 형상화 하였군.
- ③ [A]와 [B]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군.
- ④ [A]와 [B]를 보니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군.
- ⑤ [A]와 [B]를 보니 여음구의 사용 여부에 차이가 있군.